

동남아시아 수상태양광 시장 진입을 위한 타겟시장 선정 연구

A Study on selecting a target market for entry into floating photovoltaic market in Southeast Asia

김상문*, 서진석**
ShangMoon Kim, JinSuhk Suh

요 지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출범(COP21, '15)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2020년부터 탄소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예로써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31%, 2035년에는 40%까지 제고 시키다는 계획이며, 인도네시아는 2070년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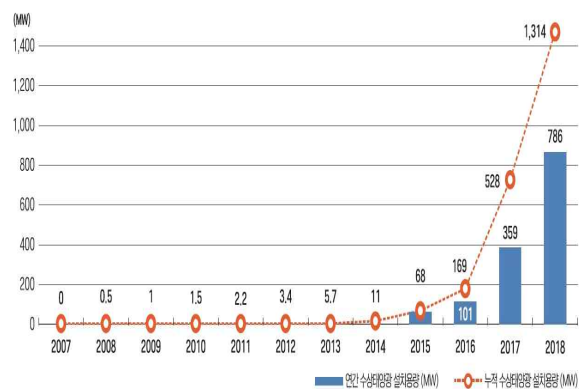
특히 수상태양광은 댐 수면을 활용함에 따라 입지의 영향이 적고 최적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기존 지상 태양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기술적 여건의 관점에서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전력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상태양광 분야의 전략적 타겟시장을 선정,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수상태양광, 중점협력국, 전략, 시장성

구 분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31%, 2035년 40%까지 제고 - 2011년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말레이시아 반도에 태양광을 2025년까지 1,096MW, 2035년까지 2,414 MW를 각각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
베 트 남	2030년 합리적인 요금에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기술이 검증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중점 개발 제시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23%, 2050년 31%, 그리고 207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 제고
태 국	2015년 15% 수준의 대체에너지 비중을 2037년 30%까지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전력 발전에 집중

<표> 동남아 주요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림] 글로벌 수상태양광 설치 용량

* 정회원 ·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 · E-mail : note2905@kwater.or.kr

** 정회원 ·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 · E-mail : suhis@kwater.or.kr